



5년 연속 KS에 오른 두산과 5년 만에 다시 KS 무대를 밟은 키움의 22일부터 격돌한다. 1차전을 하루 앞둔 21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에 참석한 두산 이영하, 오재일, 김태형 감독과 키움 장정석 감독, 이지영, 이정후(왼쪽부터)가 KS 우승트로피를 앞에 두고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2019 KBO
KOREAN SERIES
오늘 KS 1차전
BEARS VS KIWOON
2019년 10월 22일 화요일 3
스포츠동아

“요키시 지우고픈 선수”... “김재환 장타 부담”

(두산 김태형 감독)

(키움 장정석 감독)

김태형 감독 “올해는 반드시 통합우승”
장정석 감독 “1% 힘도 남기지 않겠다”
오재일 “MVP는 이영하 받을 것 같다”

22일부터 시작하는 두산 베어스와 키움 히어로즈의 한국시리즈(KS·7전4선승제) 미디어데이가 21일 잠실구장에서 열렸다.

두산 김태형 감독(52)과 오재일(33), 이영하(22), 키움 장정석 감독(46)과 이지영(33), 이정후(21)가 참석한 가운데 팽팽한 입담 대결이 벌어졌다. KBO리그의 한 시즌을 마감하는 최종 무대인 KS를 앞두고 긴장감이 묻어났지만, 솔직한 속내를 숨기지 않으며 보는 이들의 재미를 더했다. 때로는 상대 선수에게 덕담을 건네는 등 훈훈한 분위기도 연출했다.

김 감독은 “최고의 컨디션으로 KS를 준비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정규시즌 우승의 좋은 기운을 받아 올해는 꼭 통합우승을 이루겠다”고 각오를 드러냈다.

두산 베어스	구단	키움 히어로즈
김태형 감독	감독	장정석
강석천, 김원현, 이도형, 조인성, 조성환, 김민재, 강동우, 고영민	코치	나이트, 허문회, 오윤, 조재영, 강병석, 홍원기, 마정걸, 박도현
함덕주, 김승희, 권혁, 배영수, 유희관, 린드블럼, 윤명준, 후랭코프, 이원찬, 이현승, 이영하, 최원준, 이형범(13명)	투수	한현희, 브리검, 조상우, 오주원, 김동준, 최원태, 김성민, 김상수, 이승호, 윤영삼, 양현, 안우진, 요키시, 이영준(14명)
장승현, 박세혁, 이흥련(3명)	포수	주효상, 박동원, 이지영(3명)
페르난데스, 허경민, 이우찬, 류지혁, 오재일	내야수	김해성, 김용빈, 김하성, 김지수, 서건창, 오재일, 김재호, 최후태(8명)
김태형 감독, 최후태(8명)	외야수	장영성, 박병호, 송성문(8명)
국해성, 정진호, 정수빈, 김재환, 박진우, 김인태(6명)		박정음, 김규민, 샌즈, 이정후, 예진원(5명)

고, 장 감독도 “1%의 힘도 남기지 않고 이번 시리즈에 쏟겠다. 영웅군단 팬들께 최고의 결과를 선물하겠다”고 맞섰다.

● “상대팀에서 지우고픈 선수는...”
늘 경계대상은 존재한다. 양 팀 감독에게 ‘상대팀 출장자 명단에서 한 명을 지울 수 있다면 누구인가’라고 물었다. 가장 골똥스러운 선수를 꼽아달라는 의미였다. 김 감독은 키움의 KS 1차전 선발 투수 에릭 요키시를 지목하며 “준비를 잘했지만 우리가 좌완투수에게 약했다. 그러다 보니 요키시가 가장 부담스러운 선수”라고 설명했다. 두산은 올해

정규시즌에 좌완 선발투수를 상대한 47경기에서 19승1무27패(89%)로 부진했다.

장 감독은 망설임 없이 2018시즌 홈런왕 김재환을 꼽으며 “(김재환을 상대로) 큰 재미를 보지 못했고, 장타를 허용하면 항상 어렵게 경기를 풀어갔다. 이번에는 잘 막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환은 올 시즌에도 키움을 상대로 타율 0.315, 3홈런, 11타점으로 강한 면모를 뽐냈다.

● 후배들의 배신?
함께 미디어데이에 참석한 선배들을

배신(?)한 후배 선수들의 발언도 눈에 띄었다. KS 최우수선수(MVP) 전망을 묻자 주저 없이 오재일은 이영하, 이지영은 이정후를 지목했다. 그러나 이영하는 김재환, 이정후는 조상우를 지목해 선배들을 멱살하게 만들었다. 오재일은 “나를 지목할 줄 알았는데...”라고 핀잔을 주기도 했다. 이영하는 “(오재일이) 형은 항상 잘한다. (김재환이) 형이 잘하면 우리가 더 쉽게 이길 수 있다”고 했고, 이정후는 “(이)지영이 형의 좋은 리드로 (조)상우 형이 잘 던져서 상우 형이 MVP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넌지시 선배를 챙겼다.

● 2019 KS는 6경기!
행사가 끝난 뒤 장 감독을 제외한 5명은 6개의 손가락을 펴 보였다. 이번 KS가 6차전까지 진행될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장 감독만 5차전을 예상했다. 6차전까지 갈 경우 두산의 안방인 잠실, 5차전에서 끝난다면 키움 홈구장인 고척스카이돔에서 시리즈가 마무리된다.
잠실 |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키움 샌즈 두산 페르난데스

샌즈 vs 페르난데스 복덩이 외인 맞대결

샌즈, 정규시즌 두산전 홈런 두 방
페르난데스 키움상대 0.377 고타율

‘최고’ 타이틀이 걸린 외국인 타자간 맞대결이 한국시리즈(KS) 무대에서 성사됐다. 키움 히어로즈 제리 샌즈(32)와 두산 베어스 호세 미구엘 페르난데스(31)가 주인공이다.

둘 모두 올 시즌 소속팀의 복덩이 역할을 했다. 각각의 강점을 톡톡히 살려낸 덕분이다. ‘장타자’로 대표되는 샌즈는 해결사의 표본이었다. 리그 홈런 4위(28개)를 기록한 샌즈는 홈런왕을 차지한 박병호(33개)와 특급 장타 듀오로 자리매김했고 리그 최다 113타점을 쏟아냈다. 여기에 100득점(리그 2위)까지 겸했다.

‘교타자’로 분류되는 페르난데스의 장점은 안타 생산에 있었다. KBO리그 첫 해만에 리그서 가장 많은 197안타를 때려낸 그는 타율 2위(0.344)에 올랐다. 팀 내 득점 1위(87득점)를 차지한 페르난데스 덕분에 두산도 모처럼 외국인 타자의 덕을 봤다. 2018시즌에만 두 명의 외국인 타자(지미 파레디스, 스캇 반 슬라이크)가 연달아 실패했던 약풍도 홀출 털어낼 수 있었다.

자신의 첫 KS를 맞는 샌즈에게는 ‘반전’이 필요하다. 이번 포스트시즌(PS)에서 3~5번 타순을 오가는 샌즈는 준플레이오프(준PO)와 PO에서 타율 0.267과 0.154에 그쳤다. 활화산 같은 팀 타선의 도움 속에서 장정석 키움 감독의 믿음도 두텁다. 정규시즌에서 두산을 상대로 홈런 2개를 포함한 타율 0.328로 강했던 샌즈가 큼직한 한 방으로 응징하는 일만 남았다.

페르난데스에게는 통합우승의 주역이 될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다. 정규시즌을 통해 팀의 2번 타자로 입지를 굳힌 그는 기선제압의 선봉에 설 핵심 요원이다. 마침 페르난데스 역시 올 시즌 키움을 상대로 0.377의 고타율을 기록했다. 더욱이 선취 득점시 리그 최고 승률 0.831(64승1무13패)을 기록했던 두산의 정규시즌을 되돌아보면 테이블 세터를 이루는 페르난데스의 역할은 여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

2019년 가을, 단 하나뿐인 우승의 별이 리그 최강 외국인 타자를 기다린다.

서대영 기자 seody3062@donga.com

‘두산 천적’ 요키시 vs ‘절대자’ 린드블럼 KS는 ‘포수전쟁’...누가 웃을까?

키움 예상 뒤엎고 1차전 요키시 투입
두산, 예정대로 1선발 린드블럼 출격



키움 요키시 두산 린드블럼

에릭 요키시(키움)	투수	조쉬 린드블럼(두산)
30G 13승9패 ERA 3.13	2019 정규시즌	30G 20승3패 ERA 2.50
5G 2승2패 ERA 3.19	정규시즌 맞대결 성적	4G 2승1패 ERA 4.13
-	2018 한국시리즈 성적	3G 1승1패 ERA 4.40
2G ERA 5.14	2019 포스트시즌 성적	-

하며 타 구단 상대로 모두 우월한 모습을 보였다. 키움을 상대로는 4경기에서 2승 1패 평균자책점 4.13으로 다소 주춤(?)했으나 이 기록은 KS 1차전 선발 선택 배경에 큰 장애물이 되지 않았다.

두 팀은 각자의 팀 사정에 맞춰 낼 수 있는 최상의 카드를 내놓았다. 다만 그 배경만 서로 달랐을 뿐이다. 상대적인 힘에서 이득을 보려는 키움과, 절대적인 힘으로 찍어 누르려는 두산. 1차전 승리 팀이 KS 우승을 거머쥔 확률은 74.3%다.
잠실 | 정은성 기자 award@donga.com

김태형 감독 박세혁에 전권...큰 신뢰
키움 이지영 경험·박동원 수비력 기대

야구에서 포수 포지션의 중요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투수 리드와 수비는 물론 경기 전체를 조율하는 능력도 필요한데, 한국시리즈(KS)와 같은 단기간에선 포수의 역량이 시리즈의 향방을 가를 수도 있다. 두산 베어스와 키움 히어로즈의 KS에서도 ‘포수 전쟁’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두산의 주전포수는 박세혁(29)이다. 지난해까지 양의지(NC 다이노스)의 백업 역할을 수행하며 얻은 노하우를 토대로 올해 성공적인 정규시즌을 보였다. 3일 잠실 NC 다이노스와 최종전에서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짓는 끝내기 안타까지 쳐내며 가치를 더욱 높였다.
지난 4년간 KS를 함께했던 양의지가 떠났지만, 박세혁에 대한 두산 김태형 감독의 믿음은 확고하다. “확신을 가지라”는 조언만 건넨 뿐이다. “포수가 확신을 가져야 투수도 좋은 공을 던질 수 있다”는 것이다. 흔들림 없이 경기를 이끈다면 문제없다는 강한 믿음이다. 뒤를 받치는 이흥련과



박세혁 이지영(위)과 박동원

장승현도 경쟁력이 있다. 박세혁은 “과분할 정도로 많은 것을 얻은 시즌이다. 통합우승의 꿈도 이루고 싶다”고 외쳤다.

주전급 포수 2명을 보유하고 있는 키움의 인방도 탄탄하다. 준플레이오프(준PO)와 PO를 거치며 경기운영 능력을 인정받은 이지영과 부상에서 회복한 박동원이 모두 마스크를 쓸 수 있다. 도루저지 능력이 뛰어난 박동원은 정수빈 등 두산의 빠른 주자들을 묶을 수 있는 카드다. 장 감독은 “박동원은 당장 내일(22일) 1차전 선발투수 에릭 요키시와 호흡 맞춘다”며 “KS 1~4차전은 이지영과 박동원이 2경기씩 나눠 맡을 것이다. 둘 다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선수들”이라고 믿음을 숨기지 않았다.
잠실 | 강산 기자